

2024. 3. 1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손인호	02-2133-7470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02-2133-746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8쪽

문턱 제거·세면대 높이 조정...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신청하세요!

- 서울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장애인 3.29.(금)까지 집수리 신청, 7월부터 수리
- 주택 내부 벽지·장판 교체, 고장·파손 수리, 손잡이·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등
- 시각장애인 가정 잔고장 수리(1인당 15만원 이내)도 지원... '장집사' 앱 통해 신청
- 시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해 불편 섬세하게 살피고 정책 마련해 나갈 것"

- 서울시가 장애인 살고 있는 주택 내부 문턱·단차 제거,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 또 스마트폰 앱(APP)으로 조명이나 블라인드를 조종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 설치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돕고 나선다.
- 서울시는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를 3.29.(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심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오는 7~10월 중 공사(가구당 평균 400만원)가 이뤄지게 된다.
- 시는 또 엘이디(LED)전등 교체, 방충망 보수, 문손잡이 수리 등 가정 내 '잔고장 수리'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가구도 지원(1인당 15만원 이내)

한다. ‘장집사’ 앱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 600명을 모집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장애인 가구 내 벽자장판 교체, 안전시설 설치 등 집수리 지원>

- 시는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관·화장실 등 문턱이나 단차로 인해 넘어지거나 싱크대·세면대 높이가 맞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돕기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집수리 공사 및 시공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저소득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업체와의 상담을 거쳐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게 된다. 주로 화장실·침실·현관 등에 무장애 시설이나 미끄럼방지·손잡이 등 안전시설 설치 사례가 많으며, 올해부터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돕기 위한 음성인식 또는 앱(APP) 활용 조명·블라인드, 스마트 홈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확대 지원된다.

- 예를 들어 자유로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는 스스로 용변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턱 제거, 변기나 세면대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현관 입구 단차·방 문턱 제거, 경사로 등도 설치할 수 있다.

①희망가구 신청접수(동주민센터, 3월)→ ②신청가구 현장실사(4~5월)→ ③자문회의를 통한 대상가구 선정(5월 말)→ ④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7~10월)→ ⑤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11월)

- 시는 지난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302가구를 선정해 장애 유형과 필요에 맞춘 집수리를 지원,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수리 전 33점에서 수리 후 85점으로 대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박○○씨(51세)는 거실 마룻바닥과 벽지가 낡아서 다 벗겨졌지만 비용이 부담돼 수년째 그대로 살고 있었다. 빨래를 널거나 불을 켜는 등 평범한 일도 박 씨에겐 너무나 힘들었다.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장애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벽지·장판을 모두 교체하고, 휴대전화로 조작할 수 있는 도어락·엘이디(LED)등·전동 빨래건조대를 설치하면서 박 씨는 그동안 혼자 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 삶의 큰 자신감도 얻게 됐다.



전동 빨래 건조대 설치 전



전동 빨래 건조대 설치 후



벽지 도배 전



벽지 도배 후

<시각장애인 위해 전등 교체, 방충망 보수 등 잔고장 수리 지원... ‘장집사’ 앱 통해 신청>

- 서울시는 집 내부 작은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정 내 ‘잔고장 수리’도 제공한다.

- 잔고장 수리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이 ‘장집사’ 앱(APP) 또는 전화(☎ 070-7118-2090)를 통해 신청하면 지역기반 전문 수리업체와 매칭되어 방문일자 확정 후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집사’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가족이나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잔고장 수리’는 오는 연말까지 상시 신청(600명, 예산 소진 시까지)할 수 있으며,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수리비(추가 요금 발생 시 본인 부담)를 지원한다. 디지털 도어락 교체, 현관 방충망 수선, 전등·수전·경첩 교체, 안전바 설치 등 간단한 수리가 해당된다.

박○○(49세)씨와 이○○(48세)씨는 중증시각장애인 부부로,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하지만 집안에서 고장이 생기면 고칠 방법이 없다. 지난해,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나고 문 손잡이까지 말을 듣지 않아 몇 달 째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날, 앱으로 잔수리 고장 수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늦은 밤 앱으로 신청했더니 며칠 안 돼 수리기사가 방문, 환풍기와 문 손잡이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필요한 곳을 손봐 주고 돌아갔다.



수리 전



수리 후



수리 전



수리 후

□ 시는 지난해 ‘시각장애인 가정 내 잔고장 수리’ 사업을 통해 730가구, 총 1,666건의 수리 서비스를 지원했다. 수리 항목별로는 엘이디(LED)등 교체 298건(18%), 방충망 보수 246건(15%), 수전 교체 228건(14%), 현관문 수리 136건(8%) 순으로 많았다.

○ 지난해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약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돼 공인된 수리업체가 방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비도 합리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가정에서는 잔고장이 나도 수리 비용뿐 아니라 수리하는 분이 집에 찾아오는 일조차도 부담스러워 방치하다가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불편을 섬세하게 살피고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Q1. 자가소유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 허가를 해야 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또한, 소유주에게 '일정기간 거주 유지'와 '원상복구 의무 없음'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Q2.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갖춰진 주거편의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등의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지원 자격 증빙서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①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6개월)
 - ④ 기타 지원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

Q3.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나요?

-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화장실 환경개선, 도배 및 장판, 자동 빨래건조대 설치 등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특성에 맞춰 주거편의를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 수리>

Q4. 「장집사」는 누구이고 어떤 서비스인가요?

- 장집사는 잔고장 수리를 접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이며, 장애인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역 내 전문 수리 경력을 보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집수리 파트너를 칭하기도 합니다.

Q5. 수리가능 항목은 무엇인가요?

- 집 안의 생활하면서 발생한 잔고장이나 장애 특성에 맞는 제품 (도어락, 빨래건조대 등)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 다만 인테리어 목적이거나 가전제품 수리, 시공범위가 큰 경우 (도배, 샷시, 페인트 공사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Q6.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 1인당 15만원까지 수행기관을 통해 서울시에서 수리비용 및 출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 추가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됩니다.

예) 가정 내 시각장애인 1인 → 15만원 지원

가정 내 시각장애인 2인 → 30만원 지원

Q7.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족, 활동보조인, 사회복지사 등 모두 장집사(APP) 가입이 가능하며 장애인 당사자와 연동한 후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① 앱다운로드 및 가입 → ② 수리신청 → ③ 인근 수리파트너 연계, 방문일정 조율 → ④ 수리 진행 → ⑤ 수리내역 및 견적 확인